

'제2의 정인이' 막으려면... 매뉴얼부터 바꿔라

현실 동떨어지는 교육부 매뉴얼에 고민 깊어지는 신고의무자
신고 기준 추상적이고 애매해 실제 적용 어려워
객관적 증거 있어야 수사...교직원 신고 80% 급감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 맞는 매뉴얼 보완 시급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의 최일선인 교육현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룬 상태에서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해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은 아동복지전문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직원, 유치

원 교직원, 초·중·고교 교직원, 학원 운영자 및 강사 등이며 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에게 배포한 아동학대예방 체크리스트가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매뉴얼이란 지적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이번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관리,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교사들은 가이드북을 보면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있는가 하면 기존 역시 '미심쩍은 명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등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한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저학년 아동학대 체질 흔적은 주로 팔에서 나타나는데, 온라인 수업에선 얼굴 외에는 볼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 의뢰가 가능한 것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드러난 사건이 매년 20%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전체

신고 건수(1~8월)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 특히 교직원에 의한 신고 건수(2~4월)는 1283건에서 200건으로 82.9%나 줄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인 교사의 신고가 줄어든 것은 선부른 신고로 학부모를 가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담감과 피해 학생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의 리가 가능한 점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학대 관련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절차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굉장히 걱정된다. 또 피해아동의 학부모를 신고해야 할 경우 고민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학교 교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맞는 예방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제21대 총장 정성택 교수 취임

정성택(59·사진) 전남대 의대 교수가 지난 15일 전남대 제21대 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14일까지 4년이다.

정성택 신임 총장은 이날 '전남대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결재함으로써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정성택 신임 총장은 집무에 앞서 "전남대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보편타당한 인류의 가치를 세우는데 힘써 왔다"며 "저는 앞으로 우리가 다져온 내실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남대를 '더 강하고, 더 품격있는 대학'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어 "전공지식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당당한 전남대인', 위기와 혼돈의 상황에 흔들리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양성해 청년학생들에게는 희망찬 앞날을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 총장은 1980년 전남대 의대에 입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며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대한골관절증양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남대 학생처장, 의과대학 부학장, 평의원회 평의원,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의 보직도 수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파 가구 무상지원

광주 동구, 중위소득 75%까지

광주시 동구가 한파로 수도 및 계량기 동파피해를 입은 돌봄 이웃에게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돌봄 이웃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파에 얼어붙고 파열된 수도관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커버 등을 무상지원·설치해준다.

이번 서비스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수립한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항목 중 '겨울철 동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무상수리 지원이 되는 돌봄 이웃은 중위소득 75%까지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민간설비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3개동 돌봄 이웃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가구를 파악해 순차적으로 무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지난 15일 광주 영주동성당에서 열린 '2021년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에서 김희중 대주교와 참석 신부들이 안수예절을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제공>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간 마련됐는데... 실제 배출 현황은?

광주·전남 공동주택 86.2% 마련...배출여부는 조사 안돼 '반쪽'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 의무화(광주일보 2020년 12월 28일 6면)에 따른 환경부 현장 조사 결과 광주·전남 공동주택의 86.2%가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리배출 공간 마련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진행됐지만 실제 분리배출 여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29개 공동주택 단지중 25곳(86.2%)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광주 24곳, 전남(순천) 5곳의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광주 2곳·전남 2곳에서는 투명플라스틱 별도 배출 공간이 마련되

지 않았다.

광주는 공동주택 87.5%가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했지만, 전남은 60%에 그쳤다.

환경부가 제작해 배포한 '별도수거용 마대'를 활용한 곳은 광주지역 1개 단지 뿐이었다. 기존 그물망 또는 비닐 등을 활용해 분리공간을 마련한 곳은 광주에 21개 단지가 있었고,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만 부착한 곳은 전남에 3곳이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리배출공간만 준비됐다고 조기 정착이 실현된다는 것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리배출 공간이 마련됐다고 분리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대표는 "환경부의 투명플라스틱 분리배출 공간 현장조사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진여고 교장 공모

홍북학원 25일까지

설립자 바리로 임시사가 파견된 광주 홍북학원이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을 공모한다.

홍북학원은 유능한 적임자를 모집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오는 25일까지 희망자를 접수받고, 28일 심사위원회의 공모 심사를 거쳐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 공모제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공·사립 학교 재직 중인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이면 교감·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홍북학원이 제시한 지원 자격은 ▲미래지향적인 학교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 ▲학교 민주주의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 등이다. 특히 현재 이사 또는 이사의 친족 범위에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정현애 홍북학원 이사장은 "교장 공모제를 통해 적임자가 교장으로 선정돼 서진여고가 광주지역 특성화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던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이진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 열풍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품중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